

‘당나귀 귀’ 새단장... ‘1박2일’ 땀땀→색다른 관찰예능

일할 맛나는 일터 만들기 위한 대한민국 보스들 자아성찰 프로그램

‘당나귀 귀’가 앞으로 새로운 결의 관찰 예능을 보여줄 것이라며 기대를 당부했다.

2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KBS 별관에서는 KBS 2TV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 (이하 ‘당나귀 귀’) 기자간담회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이창수 PD, 김숙, 전현무, 심영순, 최현석, 양치승이 참석해 취재진과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당나귀 귀’는 일할 맛나는 일터를 만들기 위한 대한민국 보스들의 자발적 자아성찰 프로그램이다. 심영순은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변화를 맞았다고 말했다. 심영순은 “방송을 하면서 이렇게 야단맞을 줄은 몰랐다. ‘당나귀 귀’ 한 걸 질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도 발전하길 바란다”고 솔직한 생각을 밝혔다.

최근 최현석, 양치승, 김소연이 ‘당나귀 귀’에 새 보스로 합류해 에피소드를 만들어가고 있다. 전현무는 새로운 보스들 가운데 최현석에게 주목해달라고 했다. 전현무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최현석 셰프의 녹화본은 못 보고 아직 대부분 봤는데 가만이다. 젊은 보스면 진보적이고, 끈대 같은 면은 없으실 것 같은데 아니더라. 심영순 선생님은 열려 있기도 하다. 나이와 관계 없이 보스의 기질은 다르다. 최현석의 합류가 (프로그램의) 동력이 되지 않을까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최현석은 “나는 상생하는 직장 문화, 아름다운 직장 문화를 홍보하기 위해 나왔다. 이렇게 하면 울과 같이 행복할 수 있구나를 보여줄 것”이라 반박했으나, 전현무는 “최현석이 허세 아닌 허언도 있다”라고 해 웃음을 자아냈다.

이 PD는 보스를 제외한 기준을 설명했다. 그는 “본인의 힘으로 어떤 분야를 개척하고 대가가 된 분들 중에서 섭의를 하고 있다. 눈에 보이는 문제가 있는 보스는 섭의 안 한다. 완벽할 것 같은 분들을 모아서 ‘이런 분들도 문제가 있으니 생각을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다”라고 말했다. 이어 “백종원 대표님을 프로그램에 꼭 한 번 모시고 싶다. 보스로서

어떤지 한 번 보고 싶다. 스페셜 MC로 나와주셔도 좋다”라며 “정치가들도 꾸준히 섭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나귀 귀’는 MBC ‘복면가왕’, SBS ‘런닝맨’과 경쟁해 좋은 성적을 보이고 있다. 전현무는 “시청률 생각보다 잘 나온다. CP님이 1% 내려갔다고 걱정하는데 배부르 고민이다. 이 시간대가 얼마나 힘든냐. ‘복면가왕’, ‘런닝맨’ 등 시청률, 화제성을 잡은 프로그램이 있는 자리다. 처음 우리 프로그램은 3%를 봤다. 7%만 유지해도 대박이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 정도만 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이 PD는 “그동안 시청률만 보고 답했다. 시작할 때 ‘독이 든 설탕’, 3% 이상 나오기 힘들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든 (시청률) 올리는 걸 보여줘야지 싶었다. ‘1박2일’ 땀땀으로 시작한 방송이 맞다. 시한부 프로그램이었는데 여기까지 온 걸 감사하게 생각한다. 죽지 않고 버텨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한편 ‘당나귀 귀’는 매주 일요일 오후 5시 방송된다.



김숙(왼쪽부터), 이창수 PD, 심영순, 최현석, 양치승, 전현무가 2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KBS 별관에서 열린 KBS 예능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 기자 간담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는 자신의 분야에서 일가를 이룬 레전드 보스들이 일터와 일상 속 리얼한 생활을 통해 스스로를 되돌아보게 만드는 관찰 예능이다.

레인보우 출신 지속, 이두희와 열애중 “최근 연인으로 발전”



그룹 레인보우 출신 지속(29·본명 김지숙)과 프로그래머 이두희(36)가 열애 중이다.

29일 지속의 소속사 디모스트엔터테인먼트 측은 뉴스에 “지속씨

와 이두희씨가 지인의 소개로 만나 교제 중인 것이 맞다. 연인으로 발전되지 않더라도 조심스러운 입장이다”라고 밝혔다. 두 사람은 공통 관심사를 매개

체로 사랑을 키워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속은 2009년 레인보우의 메인보컬로 데뷔했다. 다양한 방송 활동을 통해 남다른 예능감을 드러내왔으며 2016년 레인보우 해체 후에는 솔로 앨범 및 드라마 OST 등을 발표하며 가수 활동을 이어왔다.

이두희는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출신의 수재로 지난 2013년 방송된 tvN ‘더 지니어스:블 브레이커’에 출연하며 이름을 알렸다. 지난해 SBS ‘미운 우리 새끼’에 홍진호와 함께 출연하며 근황을 전하기도 했다. 2014년에는 홍진호와 함께 공동컴퍼니라는 회사를 설립했고 현재는 스타트업 클래스스튜디오에서 개발을 맡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냉장고를 부탁해’ 5년만에 막 내린다

11월 말 종영

JTBC 예능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가 11월 말 종영한다.

29일 JTBC 측은 뉴스에 “냉장고를 부탁해”가 논의 끝에 11월 말 종영을 결정지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지난 2014년 11월17일 처음 방송된 ‘냉장고를 부탁해’는 JTBC 간판 예능 프로그램으로 활약해왔다. MC 김성주와 안정환의 진행을 바탕으로 수많은 스타 셰프들을 배출해왔으며 15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요리를 만들어낸다는 신선한 포맷으로 인기를 끌었다.

최현석 이연복 김풍 오세득 등의 셰프들도 ‘냉장고를 부탁해’를 통해 스타 셰프로 자리매김했다. 마지막 방송 내용은 그간의 방



송을 기념하는 여러 형식을 두고 고민하고 있고 구체적인 포맷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

트와이스 ‘필 스페셜’ 40만장 출고량 달성... 자체 최고 기록

트와이스가 단일 앨범 출고량에서 자체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지난 9월 23일 발매한 미니 8집 ‘Feel Special’ (필 스페셜)은 10월 28일 가온차트 기준 40만 장의 출고량을 달성했다. 이는 기존 트와이스가 발표한 단일 앨범 기준 역대 최고 기록이다.

‘Feel Special’은 한터 차트 기준 9월 23일부터 29일까지 앨범 판매량이 15만 4000여 장으로 집계돼, K팝 걸그룹 초동 신기록을 갈아치우고 일찍이 ‘12연속 히트’에 청신호를 켰다.

타이틀곡 뮤직비디오 역시 지난 10월 15일 0시 27분경 유튜브 조회수 1억 뷰를 돌파하고, ‘12연속 1억 뷰’라는 진기록을 세웠다.

뉴스

광주만의 고유함과 독특함을 가진

광주 상설 국악 한마당

일 시 2019. 3월 ~ (매주 토요일 17:00)

장 소 광주 공연마루(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시민로 3)

내 용 시민과 함께 어울려 즐기는 전통, 퓨전 등 다양한 국악공연

문의 광주문화예술회관 (062-613-8351, 062-613-3181)

※ 관람료 무료

광주광역시